

지역 매 아리

김제귀농귀촌협, 노래공연 봉사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회장 조정희)는 귀농귀촌협의회 회원 15여명과 함께 요양병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노래 공연 봉사활동에 나섰다.

올들어 3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봉사활동으로 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가 다양한 재능 기부활동을 통해 살맛나는 김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300여명의 요양병원 환우들과 20여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함께해 노래하고 춤추며 그간의 어려움을 잊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제시와 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는 재능기부활동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 동아리 활동, 귀농귀촌인 안정정착교육,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등 귀농귀촌인 유치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조정희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각자 가진 재능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준배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돼 살맛나는 김제, 사랑받는 김제가 되길 바란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호암광고,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제 요촌동 소재 호암광고 박현수 대표는 27일 김제시(시장 박준배)에 방문해 한부모가정을 비롯한 저소득계층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지장기탁 했다.

이 후원금은 김제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호암광고는 지난 2017년 12월에도 연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복지를 실천하면서 지역과 상생하며 나가고 있는 광고제작 업체이다.

호암광고 박현수 대표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면 관내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와일드푸드축제 기대감 증폭

완주, 준비단계 개입 최소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해 주민 주도형 축제 역량 강화

완주 와일드푸드축제가 한층 강화된 주민들의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27일 완주군은 '제8회 완주 와일드푸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근 잇따라 지역주민과 중간지원조직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역할을 높였다.

중간지원조직은 완주문화재단, 완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완주공공체육회

센터, 새마을지회, 청소년문화의집,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은 주민과 공동체로 구성된 축제 참가 부스의 역량강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완주군의 축제 개입을 최소화 하면서 와일드푸드축제가 진정한 지역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로서 변모하도록 꾀하는 것.

중간지원조직은 주민공연, 문화체험, 경연대회, 포럼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축제의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는 중간지원조직 역할 강화를 설명하고, 축제를 활

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했다.

완주군 김재열 관광체육과장은 "중간지원조직과 지역 주민간의 다양한 소통과 공유를 지속해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와일드푸드 축제를 통해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가 홍보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8회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민선7기 첫 추경 '청년 일자리' 중점

7446억원 규모 시의회 제출 주민 불편사항 해결도 집중

김제시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9.1% 증가한 7,446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민선7기를 맞아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2018년 본예산 6,249억원보다 1,197억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010억원(17.8%)이 증가한 6,681억원, 특별회계는 187억원(32.3%)이 증가한 765억원으로 각각 편성했으며 재원은 세외수입 40억원, 지방교부세 379억원, 국도비 보조금 296억원, 조정교부금 13억원, 순세계 잉여금 및 잔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469억원을 활용했다.

특히 김제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각종 공모사업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정책에 맞추어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 및 민선7기 공약이행을 위한 준비와 현안사업, 주민 불편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일자리 창출을 해서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13억원을 반영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쓰레기 적체로 인한 폐수 및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용선별장 적체쓰레기 정비사업 10억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114억원 등 368억원을 편성했으며, 국도 및 지역개발에서는 침체된 구도심인 성산자구의 도심활력사업을 위해 성산지구 지역활력제고사업 13억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민생과 밀접한 사업 등에 96억원을 투입했다.

또한 농업분야에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21억원,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 종합허관 건립 17억원 등 261억원을 편성, 국가시책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위해 5.8억원 등 보건분야에 8억원을 반영했다.

동부권에 문화관광 및 생태녹색자원을 활용해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대울저수지관광사업 20억원 등 문화 및 관광에 63억원을 투입했으며,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안정을 위해 3억원을 지원하는 등 수송및교통에 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제2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8일 최종 확정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챙기겠으며 민선7기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시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둔산영어도서관서 인문학 강연

오늘 이종민 교수 초청 '낭만영시로의 초대' 주제

완주 둔산영어도서관의 길 위의 인문학에 이종민 교수가 초청된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전북대 영문학과 이종민 교수가 초청돼 '낭만영시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 교수는 윌리엄 블레이크, 윌리엄 워드스워드, 에드거 앨런 포의 아름다운 영시들을 음악과 함께 소개한다.

이 교수의 저서로는 <변증법적 상상력-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세계>, <흑백다방의 추억>, <미치거나 즐기거나 이종민의 추수객담>, <화양연가-이종민의 음악편지>, <음악, 화살처럼 꽃하다-이종민의 음악편지> 등이 있다.

이 교수의 강연에 이어 30일 오후 1시에는 나태주 시인이 강연에 나서 '시가 당신을 살립니다'라는 주제로 시로 울고, 웃고, 화내고 감정을 표현

하는 방법과 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갖는다.

둔산영어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wa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63-290-22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완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함께 읽기 프로그램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6월부터 2018 길 위의 인문학 함께 읽기 프로그램 '결교 100주년'이 아닌 '인문학 여행'을 운영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지난 24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소셜굿즈 육성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주형 사회적 경제조직 키운다

'소셜굿즈' 현장컨설팅 강화 워크숍 개최 사업계획 공유

완주 소셜굿즈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사장 이근석)는 지난 24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소셜굿즈 육성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2018년 소셜굿즈 COOP(협동조합) 발굴·육성사업에 선정된 구성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소셜굿즈 COOP(협동조합) 실천조직으로 선정된 8개소 조직구성원과 컨설팅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야별 사업계획 공유 및 토론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이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전문기별 각각 4개의 조직을 1년간 집담해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희정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도 소셜굿즈 COOP(협동조합) 발굴·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생산해 건 강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셜굿즈 COOP(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사업은 완주 지역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과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니즈에 부합하는 완주형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군민 중심 재무행정으로 '세금 고민 뚫'

김제시 마을세무사 운영

무료 출장상담 활성화 고심

김제시는 지난 24일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2주년을 맞아 등록 마을세무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았다.

김제시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6월 1일 첫 상담을 시작해 수시상담과 매월 정례적으로 지역에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정례 상담은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간담회를 주관한 배성권 세정과정은 김제시에 등록된 4명의 마을세무사가

애써 주셔서 평소 세무상담을 받고 싶어도 비용과 시간이 여의치 않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표하고, 인근시 재능기부 미등록 마을세무사를 김제시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김제시 마을번호화사·마을세무사 무료상담은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번호화사·마을세무사 무료 정례상담 통합운영 제도는 시민들의 생활법률·세무상담 전반 및 필요한 법적 절차의 궁금증을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상호 보완적 법률상담으로 무료 법률상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일석다조의 효과로 이용 상담자가 증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maller images of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